

루키의 패기 “1군 입성이 목표”

KIA 윤영철, 아마추어 최고 투수로 프로 입문

함평기아챌린저스필드서 웨이트트레이닝 위주 체계적인 훈련
원손 에이스 양현종 선배 조언 ‘큰 도움’... ‘선발의 꿈’ 계속 도전



윤영철(18·충암고)은 ‘휴가’를 얻어 2022 야구·소프트볼인의 밤 시상식에 참석했다. 윤영철은 12월이 시작되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훈련장인 함평 KIA 챌린저스필드에 집을 풀었다. 아마 시절의 끝과 프로 생활의 시작이 교차하는 시점, 윤영철은 예비 프로 선수로 훈련하고, 고교 최고 투수로 무대에 오른다.

윤영철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정한 고등부 우수 선수로 뽑혀 19일 트로피를 받았다.

윤영철은 올해 15경기에서 13승 2패 평균자책점 1.66으로 호투했고, 청소년대표에 선발돼 18세 이하 야구월드컵에서도 에이스로 활약했다. 2023 KBO 신인드래프트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가진 KIA는 ‘고교 원손 에이스’ 윤영철을 지명했다.

이번 겨울 윤영철은 야구·소프트볼인의 밤, 최동원상 등 여러 시상식에 ‘고교 최고 투수’ 자격으로 참석했다.

올해 아마야구 마지막 시상식이 열린 19일에도 주인공이 된 윤영철은 “정말 영광이다. 올해 좋은 상을 많이 받았다”며 “오늘도 함평에서 훈련하다가 올라왔다. 조금 바쁘지만, 기분 좋다”

고 말했다.

그는 “2학년 때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올해는 청룡기 결승전에서 패하는 등 우승컵을 들지 못했다. 고교 생활을 전체적으로 만족하지만, 올해는 아쉽다”고 고교 시절을 돌아봤다.

고교 선수로 일정을 모두 마친 윤영철은 프로 데뷔를 준비한다.

윤영철을 ‘차세대 에이스’로 지목한 KIA는 그의 어깨를 보호하고 있다.

윤영철은 “KIA에서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캐치볼은 하지 않고 웨이트트레이닝에 집중한다”며 “함평 시설이 정말 좋다. 내 몸이 달라지는 기분이 든다. 음식도 맛있다”고 웃었다.

그는 청소년 대표팀에서 함께 뛴 선수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함평의 음식 자랑’을 했다.

또한,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원손 에이스 양현종과 짧게 훈련한 기억을 떠올리며 “선배가 정말 잘 챙겨주시고, 훈련할 때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셨다”며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고교 최고 투수로 인정받았고, 프로에서 훈련도 잘 소화하고 있지만 윤영철은 자만하지 않는다.

윤영철은 “1군에서 자리 잡는 게 목표다. 신인왕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목표로 내세울 수 있다”며 “보직을 욕심낼 때도 아니다. 팀에서 정



KIA 유니폼을 입고 프로무대에 입문한 윤영철

해주시는 자리에서 던질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조심스럽지만, 더 좋은 투수가 되겠다는 의욕을 강하다.

윤영철은 “제구와 변화구 구사는 자신 있다. 마운드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이라고 자신의 장점을 소개하며 “더 발전해서 선발을 맡길만한 투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45001’ 수여식. 왼쪽부터 전정민 진월팀장,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평형 사무처장, 강대성 안전보건담당자.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진월테니스장 전국 최초 안전경영 인증 획득

광주시체육회 진월국제테니스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o45001)’ 4차 시범사업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인증 시설로 최종 확정됐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는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체육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시설별 설치기준 및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 대한 경영이 우수한 체육시설에 대해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o45001) 심사 평가지표 4개 분야 19개 항목(체육시설 안전경영 관리체계분야, 안전위생시설 및 활동수준분야, 관계자

안전의식도 분야, 공통 필수서류 제출)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으며, 전국 60개 신청 기관 중 진월국제테니스장을 포함한 24개 기관의 시설만이 최종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진월국제테니스장이 전국 테니스장 최초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요소의 발굴 및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MLB 홈페이지 첫 화면 장식한 이정후 (MLB닷컴 캡처)

미국 진출 선언 이정후

MLB 홈페이지 첫 화면 장식

미국 진출을 선언한 이정후(24·키움)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인 MLB닷컴 첫 화면을 장식했다.

MLB닷컴은 20일 “이정후가 다음 MLB FA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활약상을 집중 조명하고 MLB 성공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 매체는 “KBO리그 슈퍼스타인 이정후는 MLB 한 팀의 날개에 바람을 일으켜줄지 모른다”며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정후는 2024년 MLB에서 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MLB 경기장에서 뛰는 이정후의 플레이는 당장 내년 3월에 볼 수도 있다”며 “한국이 준결승에 진출하면 마이애미 린디포 파크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3 스쿼시 국가대표. 왼쪽부터 양연수·송동주·허민정·엄화영·이지현·오성학·이민우·나주영·유재진·이동준. (대한스쿼시연맹 제공)

광주시체육회 오성학·송동주...전남도청 양연수

2023 스쿼시 국가대표 선발

광주시체육회 오성학과 송동주, 전남도청 양연수가 2023년 스쿼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대한스쿼시연맹은 지난 달 2023 스쿼시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개최해 2차 선발전 진출자 남녀 각 5명을 선발했다. 이후 김천스쿼시장에서 개최된 2차 선발전은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 예정자 남녀 각 3

명과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5명을 포함해 남녀 풀리그로 진행됐다.

2차 선발전 결과 남녀 우선선발(랭킹포인트 1위) 이민우와 허민정을 비롯해 남녀 선발전 1-4위 등 총 10명의 국가대표가 확정됐다.

여자부는 1위 이지현(대전시체육회), 2위 송동주(광주시체육회), 3위 양연수(전남도청), 4위 엄화영(인천시체

육회)이 태극마크를 달았고, 남자부에서는 오성학(광주시체육회)이 4위로 합류했다.

양연수는 이번 선발전 참가에 앞서 발 부상을 입었지만 출전을 강행했다.

8명이 참가해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양연수는 7게임 중 5게임을 잇따라 승리해 3위권을 확보했다. 양연수는 부상악화를 막기 위해 2게임 기권해 최종 5승 2패로 국가대표에 승선했다.

양연수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이 연기돼 많이 아쉬웠지만 부상과 컨디션 조절을 잘해 내년으로 연기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고 싶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AI페퍼스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AI페퍼스, 23일 클래식 공연·풍성한 경품 이벤트



스마스 이벤트를 펼친다.

AI페퍼스는 20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는 23일 GS칼텍스와의 홈경기에서 ‘AI페퍼스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I페퍼스는 경기 시작 전 오후 6시부터 세계적인 첼리스트 김규식과 무누스 앙상블 팀을 초청해 클래식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무누스 앙상블은 첼리스트 김규식을 중심으로 기타 박운우, 아코디언 정태호, 더블베이스 오정택, 피

아노 오은철로 구성된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음악으로 음악계의 새로운 흐름과 효과를 창의적으로 선보이는 팀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 무누스 앙상블 팀의 대표곡들을 라이브로 선사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낼 예정이다. 당일 배구 티켓 소지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중들은 당일 오후 5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관람객 전원에게 AI페퍼스 기념 티셔츠를 증정할 예정이며, 경기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선수단의 애장품과 AI페퍼스 페퍼롤루 마스코트 인형을 받을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당일 관람객 선착순 200명에게 AI



AI페퍼스 배구단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는 23일 GS칼텍스와의 홈 경기에서 ‘AI페퍼스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은 AI페퍼스 홈경기 모습.

페퍼스 파트너사인 푸마의 할인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페퍼스타디움 경기장 내 구역별로 운영 중인 ‘푸마존’과 ‘이디야커피존’을 예매하면 추가적인 경품도 얻을 수 있다. 푸마존 관람객에게는 푸마 X AI페퍼스 맨투맨 의류, 이디야커피존 관람객에게는 이디야 쿠키 및 1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제공한다.

장매주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구

단주는 “올 한 해 AI페퍼스에 끊임 없는 응원과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 주신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기장을 찾아 준 팬 분들을 위한 축하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했다”며 “국내 최고의 첼리스트가 이끄는 클래식 공연과 배구경기 관람을 통해 AI페퍼스 팬들이 뜻 깊은 크리스마스 추억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신진서, 춘란배서 또 커제 제압

변상일도 4강 합류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22) 9단이 중국 1위 커제(25) 9단을 또 물리쳤다. 랭킹 2위 변상일(25) 9단도 중국의 강호 리웨이청(22) 9단을 꺾고 4강에 합류했다.

“디펜딩 챔피언”인 신진서는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14회 춘란배 세계프로바둑선수권대회 8강에서 커제를 상대로 181수 만에 불계승했다.

흑을 잡은 신진서는 초반 포석에서

미세하게 불리했지만, 중반 전투에서 단숨에 우위를 확보한 뒤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견인했다.

이로써 신진서는 커제를 상대로 최근 4연승을 거두며 강세를 이어갔다. 변상일은 중국 랭킹 10위 리웨이청과의 8강전에서 극적인 반집 역전승을 거뒀다.

8강전이 끝난 뒤 21일 열리는 준결승대진 추첨 결과 신진서와 리쉬안하오, 변상일과 탕웨이잉의 대국이 성사됐다. /연합뉴스